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3/30~2026/04/05]

2026.04.06

[로봇] 부진한 로봇株

- 클로봇 2,000억원 유상증자. 물류 SIDLIS 인수와 미국 법인 설립 목적
- 2025년 국내 로봇 산업 전체 매출 2조 2,651억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 영업손실은 -2,257억원
- 중국은 휴머노이드 양산 단계로. 애지봇 누적 1만대 출하. 유비텍도 작년 1,079대 판매

[방산] 미사일 재고 소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방산 부문 인수 참여. 매각가는 1.5조원 수준
-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걸프국 요격 미사일 재고 소진 가속
- 미 해군 훈련기 UJTS RFP 발행. 6월 29일 마감. 두 업체에 계약 체결 가능성도

[조선] 미국 함정 사업 기회

- 이번 주도 삼성중공업 VLGC, 한국조선해양 P/C선, LPGC, VLC 등 다수 수주
-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프로젝트에 한화 필리조선소와 삼성중공업 참여
- 미국 FY27 국방예산 1.5조달러 요청. 국방부 조선 분야는 658억달러 요청. 34척 함정 조달 추진

[항공] 2026년 기재 도입 현황

-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비상경영. LCC들 운항 감축 확대
- 티웨이항공, 추형에서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사명 변경 통과
- 미국 항공사들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수하물 요금 인상 확대

[해운] 홍해 봉쇄 우려

- 후티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 시사, 홍해 물류망 이중 초크포인트 리스크 확대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횡수 하루 평균 8척으로 소폭 증가
- 현대글로벌비스, VLCC 1척 장기용선 계약 추가 확보로 총 12척 확보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부진한 로봇株

작로봇 시총 합계는 YTD +5% 상승에 그침. 연초 CES 이후 강세 기록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모멘텀 소멸로 부진. 4월 이후 기아차 인베스터데이,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등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0)

[부진한 로봇株]

- 연초 이래 로봇 기업 시총 합산은 5% 상승에 그침. CES 이후 기대감 상승하며 한때 50% 이상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월 이후 부진한 추세 계속되고 있음. 밸류에이션 부담은 물론, 모멘텀 소멸과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된 영향. 4월 이후 (1) 기아차 인베스터데이(4월 9일), (2)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3) 미국 로봇 관련 정책 구체화(대중 견제)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
- 이번 주 예정된 기아차 인베스터데이에는 잭 채코우스키 아틀라스 개발 총괄이 참석해 '아틀라스'의 개발 로드맵을 설명할 계획. 2028년 이후 3세대 CAPA 구축 등 대략적인 로드맵이 공유된 상황이나,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기대. 옵티머스 Gen 3는 1Q26내 공개 예정이었으나, 지연 중. 일론 머스크는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 올해 2Q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S/X 라인 폐쇄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로봇 공개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 X에서 디자인 등 지속적으로 노출 중. 마지막으로 정책은 Humanoid Act 등 중국을 지목한 정책들의 구체화 기대.

Key Chart: 2Q26 주요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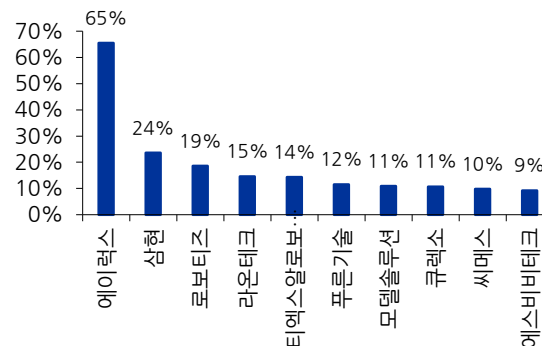
시기	주요 모멘텀
2Q26	기아차 인베스터 데이(4월 9일)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4월 19일)
	미국 로봇 행정명령 및 관세 부과 결정(4~5월 예상)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2~3월) → 상반기 中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3/30~04/05)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티엑스알, 현대차 美 공장 뚫었다. 'AMR' 공급
- 로보티즈 "'GAEMI' 양산 원년, 2년내 1000대 목표"

[휴머노이드]

- CJ대한통운 상품 포장 휴머노이드 시연
- 레인보우로보, 4월 SIMTOS서 RB-Y2 공개 예정

[부품/SW/기타]

- 국내 로봇 산업 매출 전년비 -4.6% 감소, 손실도 확대
- LG전자, 에스피지와 로봇 액추에이터 개발 협업
- 클로봇, 2,000억 유증해 물류 로봇 SI 'DLS' 품는다
- 韓, 로봇 데이터 축적은 글로벌 10%도 안돼
- 위로보틱스, 시리즈 B 라운드서 1,000억 유치 성공

[Global]

- 제네럴리스트가 GEN-1 범용 AI 모델을 공개
- 생츠퍼리 AI, 제로샷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공개
- 애지봇 "1만대 로봇 출하. 내년 말까지 10만대 목표"
- 러취로보틱스, 휴머노이드 年 1만 대 생산 공장 가동
-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데이터세트 오픈소스로 공개
- 샤오미, 휴머노이드에 '생체공학 손' 탑재
- 中 로봇업체 이노벤스, 홍콩서 20억달러 IPO 추진
- 中 협동 로봇 기업 '화옌', 홍콩 증시 상장
- 中 두보트, 지난해 협동 로봇 출하량 세계 1위 기록
- 中 오리온스타, AI 서비스 로봇 2종 발표
- 日 4개사, '휴머노이드 학습 데이터 컨소시엄' 출범
- 도쿄로보틱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보행 공개



Weekly Keyword

미사일 재고 소진

이란 사태 장기화 속 미사일 재고 소진에 대한 관심 확대. 4월 5일 까지 이란은 약 2천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함. 걸프국들의 PAC-3 소모량은 약 1,300여발로 추산됨. 향후 재고 보충 수요 확대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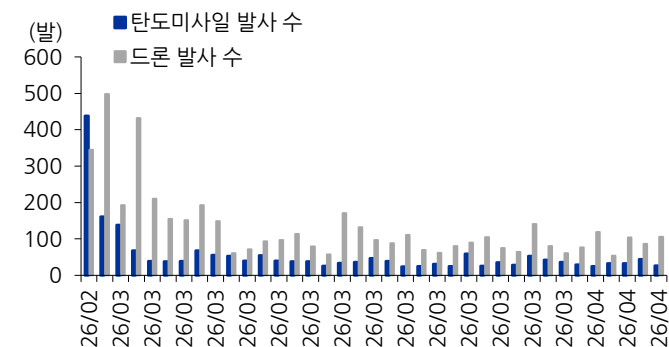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68)

[미사일 재고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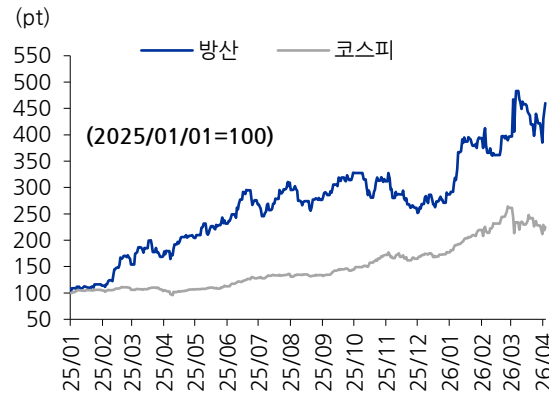
-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공 자산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중. 4월 5일까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수는 약 2천여발, 드론은 5천여발로 파악됨.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과 걸프국들은 THAAD, PAC-3를 활용. 걸프국의 PAC-3 소모량은 1,300여발 수준. 전체 재고의 30% 수준이나, 국가별로 편차는 큼. 주요 타겟이 되었던 UAE와 쿠웨이트 등은 약 80%의 소모량을 기록 중.
- 미국은 소진된 방공 자산을 확충하기 위해 FY2027 국방 예산 요청에서 PAC-3 MSE 2,798발을 요구. 평년 200~300발 수준에서 대폭 증가. 미국은 올해 PAC-3와 THAAD 등 주요 미사일 체계를 3~4배 증산할 계획을 발표. 다만 본 목표에 도달되는 시점은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 동맹국 소요까지 고려하면 타이트한 CAPA가 지속될 전망.

Key Chart: 이란의 미사일 & 드론 발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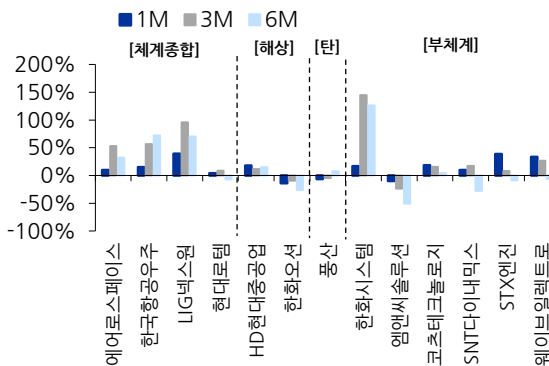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3/30~04/05)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천무' 폴란드 3차 수출계약 이행 본격화
- 삼양컴텍, 튀르키예 방산업체 'SIC 방탄세라믹' 공급
- [기업별 이슈]
- 한화, K9MH 美육군 '노크'. "엘라배마 생산 거점 구축"
-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에 2조원 투자 패키지 제안
- 한화에어로, 다목적 장갑차 '타이곤' 중남미 최초 공개
- 한화에어로, 첫번째 루마니아 자주포 출고
- LIG넥스원, 'LIG D&A'로 사명 변경 "종합 방산 도약"

[기타]

- 군, 탄 탱크 설립해 미사일/드론 등 비축 확대
- 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韓 인니 "KF-21 전투기 양산 협력"
- 인니 국방부 "KF-21 보라매 전투기 구매 아직 미확정"
- 무보, 루마니아에 8억유로 금융 제공

[글로벌]

- 트럼프, 이란전 여파 속 국방예산 40% 증액 추진
- 이란 공격에 걸프국 요격미사일 최소 2,400발 소진
- 이란 방공망 붕괴됐다더니. 美 F-15A-10기 잇단 격추
- 트럼프 "향후 2~3주, 극도로 강하게 이란 타격할것"
- 美국무 "이란 전쟁 끝나면 나토 재검토"
- 보잉, PAC-3 시커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릴 계획
- 미 해군, 신형 훈련기 도입을 위한 RFP 발표
- 스위스, 납기 지연에 미국 패트리엇 계약 종료 검토
- 日英伊 GCAP 공동개발 첫 관민계약 체결



Weekly Keyword

미국 함정 사업 기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한화 필리조선소와 삼성중공업이 NGLS 사업에 참여하면서 미 함정 시장 진출 초읽기 시작. 3일에는 미국 국방 예산 요청안 공개. 685억달러/34척 함정 조달 요구하며 55년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8)

[미국 함정 사업 기회]

-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조선업종의 발주는 계속되고 있음. 에틸렌 수급 우려에 대해서도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에틸렌 가스 수급이 안정적이며, 조선소들 생산 공정 차질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여기에 한화 필리조선소(Vard Marine US 협력) & 삼성중공업(GD NASSCO 협력)가 미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 참여하며 미국 함정 시장 진출의 초읽기가 시작되었음.
- 그리고, 3일 제출된 미국의 FY2027 국방 예산 요청도 무려 685억달러로 총 34척 함정 조달(비전투함 16척, 전투함 18척)을 추진할 것을 공개. 작년에는 272억달러에 17척 건조를 요청했으나, 올해는 그 두 배 수준. 195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함정 건조 예산안.

Key Chart: 도산안창호함, 캐나다로 출항

FY 2027 Shipbuilding Budget

There 34 Ships are in the \$65.8 Fiscal Year 2027 shipbuilding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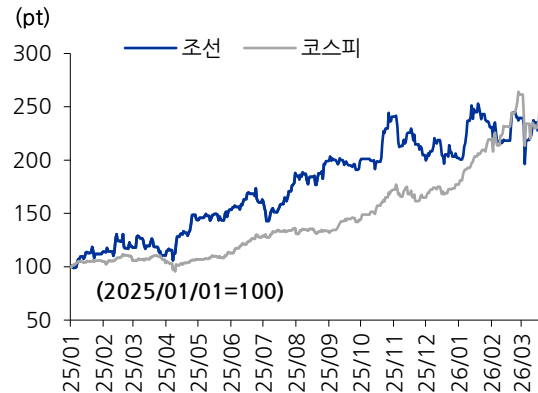
The request include major purchases of auxiliary and support ships in the largest shipbuilding budget since 1962, adjusted for inflation.

Submarine Tender Hospital Ship Fleet oilers T-AGOS Strategic Sealift Used Sealift Bulk Fuel Vessel Fireboats LCAC SLEP Ship to Shore Connectors Landing Ship Medium FFG(X) Frigate Arleigh Burke-class Guided-missile destroyer Columbia-class Submarine Virginia-Class Submarines San Antonio Amphibious Warship Special Mission Ship America L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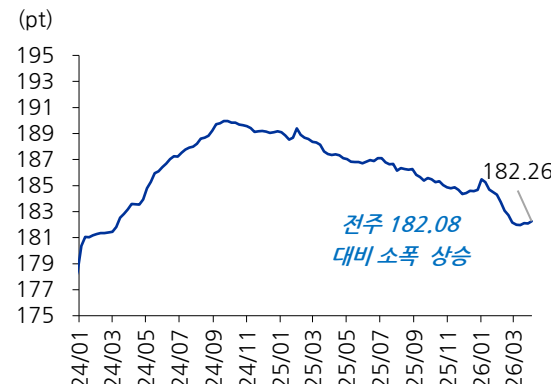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3/30~04/05)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VLGC \$113.0M 2척 수주
- ONE 컨선 수주전 HD현대중공업 승리. 6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MR PC \$50.7M 8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LPG \$79.4M 2척 수주
- HD현대삼호 VLGC \$116.0M 2척 수주
- 대한조선 수에즈막스 \$91.5M 2척 수주
- 한화엔진, 한화오션 엔진 \$63.6M 수주

[특수선]

- 한화디펜스-필리조선소, 美해군 차세대 군수함 개발
- 삼성중, 美차세대 군수지원함 프로젝트 참여
- 加통상장관 "한국과 방산 등 분야 영구적 관계 구축"
- 안규백, 미국에 "핵잠-조선-MRO 패키지 동맹" 제안
- HD현대중공업, 25개국 무관단 본사 초청
- 미 지한파 중진 의원 "한국 핵잠 도입 초당적 합의 가능"

[기타]

- HD한국조선해양, 20억 달러 규모 교환사채 발행
- 에틸렌 수급 차질에도 "조선소 정상 가동 중"
- USTR, 한국 선박-조선 포함 '과잉공급 조사' 착수

[글로벌]

- 트럼프, 금요일에 차기 국방 예산으로 1.5조 달러 요청
- 월, 中조선소들과 20척 MR 탱커 신조 계약 논의
- 우드사이드, 브라우즈 업스트림 FPSO FEED 입찰
- 加 싱크탱크 "잠수함 '속도'에 치우쳐, 심사숙고해야"
- 캐나다 잠수함 "100% 수준 잠수함 기술 이전 요구"



Weekly Keyword

2026년 기재 도입 현황

2026년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기 기단은 6대 순 증가를 기록 중. 2025년에는 총 25대의 순증을 기록한 바 있음. 이란 사태에 따른 여객 수요 부진시, 항공기 기단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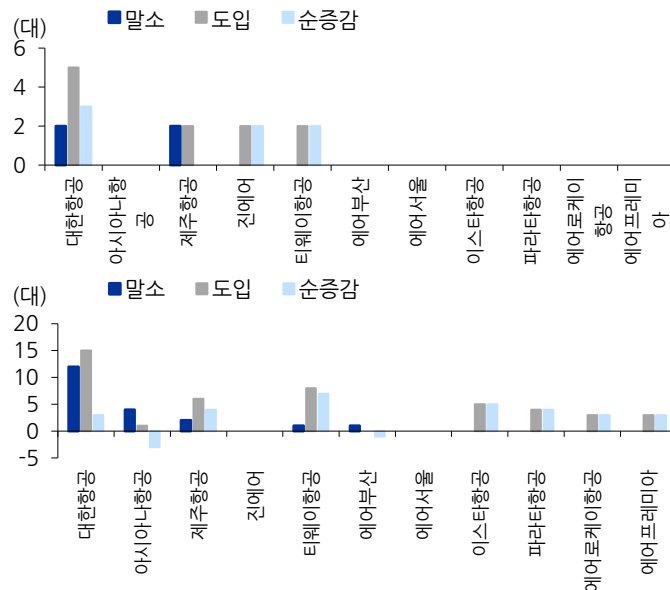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8)

[2026년 기재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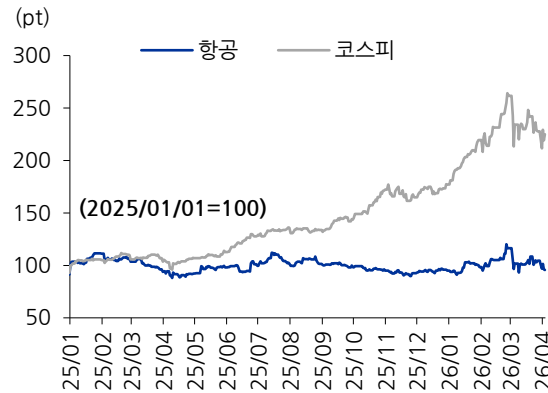
- 2026년 현재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 수는 10대, 말소는 4대로 6대 순증 기록 중. 2025년에는 45대 도입, 20대 반납으로 25대 순증을 기록.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4대 도입(B78X 2대, A350 1대, A321N 1대), 2대(B772, A380) 말소. 제주항공 2대 도입(B738 2대), 2대 반납(B737NG 2대). 진에어 2대 도입(B738 2대), 티웨이항공 2대 도입(B738 2대).

Key Chart: 2026년(상), 2025년(하) 기재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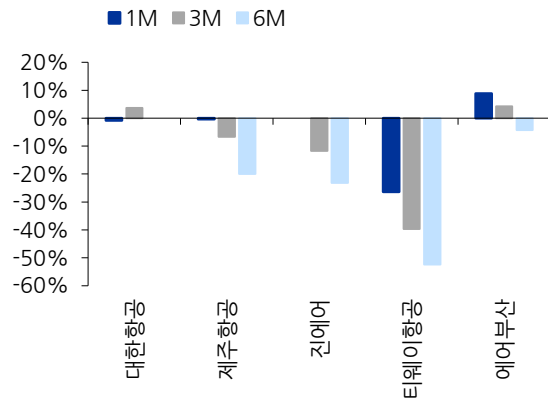


자료: ATI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3/30~04/05)

[여객/화물]

- 대한항공 두바이 운항 중단 5월까지 연장
- 아시아나항공, 4~5월 중국-캄보디아 노선 비운항
- 제주항공, 동남아 노선 110편 줄인다
- 에어서울도 4월 인천~광 노선 비운항
- 에어로케이, 이바라키 노선 비운항
- 에어로케이항공, 베이징 인접 석가장 신규 취항
- 에어로케이 "멀리 대신 가까이" 일본 노선 늘린다
- 파라타항공, LA 직항 취항 내년으로 연기
- 제주항공, 5월부터 인천~제주 하늘길 연다
- 섬에어 하루 왕복 4회 사천~김포 신규 취항
- 국토부, 헝가리-오스트리아 운수권 확대
- 항공화물 1t 美 보내는데 51만원 → 220만원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비상경영. 티웨이-아시아나 이어 세번째
-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비상경영 체제 돌입
- 에어서울, 마국 진에어 OC 건물로 임시 본사 재이전

[기타]

- 에어프레미아, 작년 영업손 321억 '적자전환'
- 5월 유류할증료 '33단계' 지옥문 열린다

[글로벌]

- 미국 항공사들, 유가 급등 속 수하물 요금 줄인상
- 中, 국내선 유류할증료 순식간에 6배 인상
- 피치, 브랜드 리뉴얼. 4월부터 신규로고 적용
- ANA 저가항공 '에어재팬' 출범 2년 만에 운항 중단



Weekly Keyword

홍해 봉쇄 우려

후티 반군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 시사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홍해 봉쇄 리스크까지 확대.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중동발 에너지와 물류 흐름이 동시에 차단될 가능성 존재.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

[홍해 봉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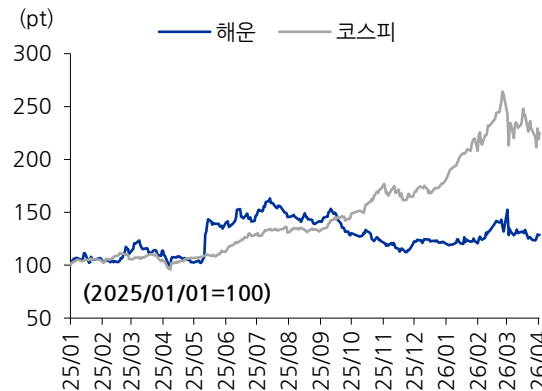
- 4/1 후티 반군은 걸프 국가들의 對이란 군사 개입 시 홍해 핵심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경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을 경우, 아시아-유럽 주요 해상 루트가 차단되고 중동발 에너지와 물류 흐름이 동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유럽 항로는 희망봉 우회로 전환되며 이전 홍해사태 때 경험한 항해일수 증가, 선박 부족, 연료비 상승 등 복합적인 비용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 다만 국내 주요 선사인 HMM과 현대글로벌은 23년 12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희망봉 우회 운항을 지속 중으로 운송 차질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Key Chart: 중동 해상 요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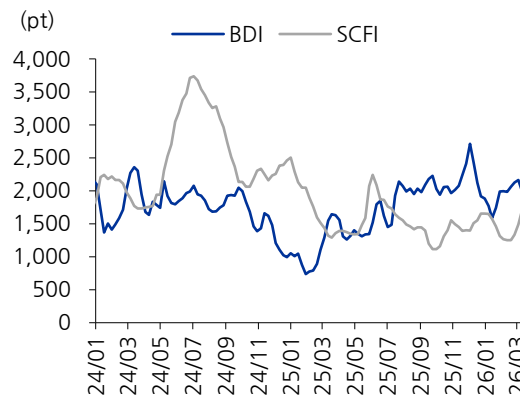


자료: 더 기디언 등 외신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v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3/30~04/05)

[벌크선]

- 벌크선 수요 감소에도, 대서양 물동량으로 운임 방어
- 유조선 운임 78% 뛴 때, 벌크선 운임은 제자리

[탱커/가스선]

- 이란, 해협 통과 유조선 배럴당 1달러 부과 추진
- 중동-아시아 VLCC 운임 사상 최고치 경신
- 이란 쿠웨이트 유조선 피격, 중국 선박은 해협 통과
- 日 상선미쓰이 선박 연이틀 호르무즈 해협 통과
- 현대글로벌비스, VLCC 1척 장기용선 계약 확보로 12척 운용

[컨테이너선]

- 글로벌 주요 정기선사, 4/1부터 최대 40%까지 운임 인상
- 프랑스 선사 컨테이너선, 개전 후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아프리카항로 물동량 감소, 희망봉 우회로 항만 적체 가중
- 대만 양명해운, 중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노선 개설

[기타]

- 국제해상보험연맹(IUMI), 화물-선체-책임 보험 가용성 유지
- 글로벌 벙커유가격 중동사태로 연일 최고치 경신
- 트럼프 이란에 무력 경고, 호르무즈는 각자도생
- HMM 이사회 부산 이전 의결, 노조 총파업 예고
- 정부, 중동전쟁 피해 선사에게 최대 1,000억원 지원
- 한국해운조합, 유가폭등 118억 규모 선제적 지원 결정